

에볼라·사스...우리가 알아야 할 '지구의 숨은 권력자'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이지 않는 날개가 달린 죽음이 떠오르며 두려워진다. 스페인독감으로 죽어가는 환자들, ‘철폐’ (인공호흡 보조장치)에 누워 있는 소아마비의 피해자, 치명적인 에볼라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전신 보호복을 입은 의료인들, Zika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두증에 걸린 아이들이 떠오른다.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지구 생명 역사의 일부다. 하지만 정확한 바이러스의 기능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바이러스

매릴린 루싱크 지음, 강영욱 옮김



전'이라 해도 무방하다. 식물병리학, 환경미생물학, 생물학 전문가답게 저자는 바이러스 역사부터 분류 체계, 생활형태, 면역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적인 과학 칼럼니스트 칼 짐머는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배우는 목적은 그저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평한다.

바이러스의 속주는 모든 생명체라 해도 무방하다. 사람은 당연히 동물, 박테리아, 원생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바이러스가 숙주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숙주가 살아야 자신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네코코커스 피지 Syn5’라는 바이러스는 바다에서 매일 발생하는 세균의 20~50%를 죽임으로써 지구 생태계 균형을 맞춘다. 만약 약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구 대부분이 ‘세균 수프’로 뒤덮였을지도 모른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사람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이다.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증명적으로 연구해왔기에 그렇게 명명됐다. 저자는 “사람에게만 감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 때로는 매개체 곤충에 감염되기도 한다”며 “몇몇 바이러스는 1차 숙주로 다른 동물이나 곤충에 감염한 뒤 최종 숙주로서 사람에게 감염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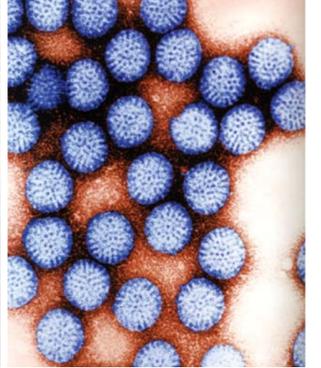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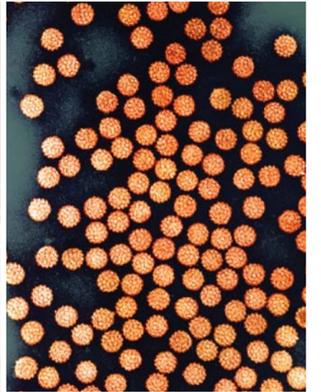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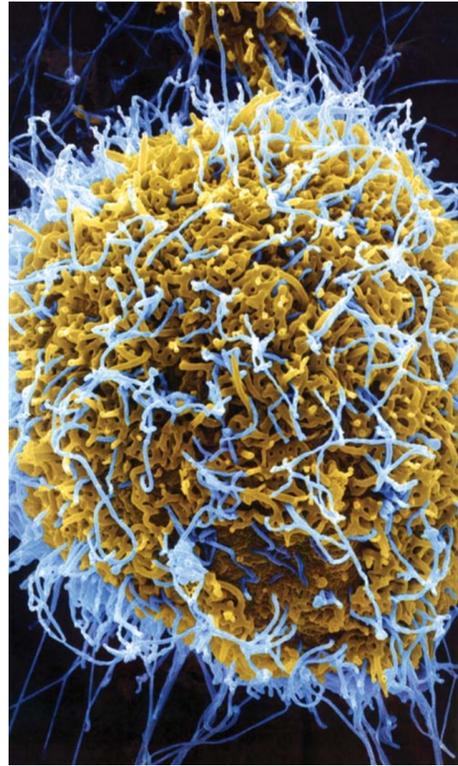
사람을 유일한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는 몇 종류에 불과한데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천연두 원인균인 ‘두창 바이러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바이러스’다. 저자는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천연두는 근절됐다고 본다. 반면 소아마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소아마비백신은 ‘폴리오바이러스’ 자체를 약독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백신 접종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그대로 쓴다는 것인데, 현재 야생 폴리오바이러스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세계 오지의 어딘가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밖에 책에는 척추동물바이러스, 식물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소개돼 있다. 특징을 살린 그림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진은 신비하면서도 이해롭다.

바이러스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아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구를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으로 만든 주역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점이다. 과학의 발달로 바이러스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바이러스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 복제 등 진화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숲·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숙주세포를 탈출하는 에볼라바이러스의 모습(푸른색 부분이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입자(노란색)의 모습,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로타바이러스 A형 입자. <더숲 제공>

0인칭의 자리

უნ해서 지음

2010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운해서 작가가 ‘0인칭의 자리’를 발간했다. 그동안 작가는 소설집 ‘코러스크로노스’, ‘암송’을 통해 시적인 사유와 현학적인 문체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작품은 “엄청난 독립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라는 평을 얻은 첫 소설집 ‘크리스크로노스’ 이후 꾸준히 다듬은 장편이다.

운 작가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해석이 가능한 서사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끊임없이 사유하며 서사 속에서 헤매는 일이기도 하다. 문장을 읽어내는, 언어가 만들어낸 공간을 탐사해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무엇을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 찾아서 읽는다”는 운 작가의 목소리는 “생각하는 나머지” 지워버려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은 어린 시절, 카메라 속 어머니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한 남자가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빛을 프레임에 담는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그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작가는 과연 이 소설을 통해 삶의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작품의 제목이 씩어진 의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자의 목소리, 무관심한 에피소드의 전개 등은 전통적 독서로는 의미를 가능하기 어렵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이 ‘타자가 되어보기’라는 불가능한 영역을 언어라는 공간에서 구축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물과 에피소드가 누적될수록 모든 이야기는 잘게 부서진 조각이 아닌 거대한 조각도의 일부로 다가온다. 또한 ‘0과 1사이’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진폭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상

강인한 외 지음

“진정한 시인이 소망하는 자리는 매혹적인 감각과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뿌리 깊은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갈라놓는 것도 상상인의 자유이고 의지이고 열정일 것이다. “언어는 내면을 포괄할 수 없다. 내면은 말들이 머물지 못하는 곳으로 사람을 이끈다.”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출판사 상상인 시선으로 시집 ‘상상’이 발간됐다. 강인한, 양애경, 오택환, 이승하, 박소유, 박유배 시인 등 107명의 시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엔솔로지’다.

‘상상’이라는 시집 제목이 암시하듯, 시의 본령은 자유로운 상상과 심상의 표현이다. 저마다 개성적이고 독특한 목소리를 소유한 시인들의 시는 한 작품 한 작품 아껴 읽고 싶을 만큼 귀하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오늘의 한국 현대시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뛰어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1부에 실린 글은 이 시집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작품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원자 시대가 열리고, 달 여행이 가능해지고, 추상미술이 도래하더라도, 내가 ‘페인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들이 창작되고 잊히는 시대에, 과연 시가 자리할 곳은 어디인가 새삼 묻게 된다.

“그럼에도 시는 태어나고 시집은 각자의 얼굴을 가진 존재이다. 수많은 출판사가 있다. 특별한 시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어디에 머물지 못하는 말들의 저항이 더러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잊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타성적인 것들을 혁명하는 것도 상상인의 몫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상상인·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 극우의 탄생 메이지 유신 이야기

서현섭 지음

“메이지 유신의 일본인들처럼 국난 극복을 위해 개혁에 나서자.” 일본 극우 정당에 속한 아베 총리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일본 관련 이슈에서 곧잘 화두에 오르곤 한다. 험한 시위, 역사 왜곡, 제국주의 찬양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눈총을 받는 이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일한국대사관 참서관, 후쿠오카·요코하마 총영사 등을 거친 서현섭 나가사키현립대 명예교수는 일본 내 극우적 사고의 근원에 메이지 유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최근 펴낸 ‘일본 극우의 탄생 메이지 유신 이야기’는 지금의 일본이 뿌리 내린 지점이 150년 전 메이지 유신 시기임을 지적하며 요시다 쇼인부터 오늘날의 아베 신조 총리까지 이어지는 유신의 역사를 풀어내는 책이다.

책은 44개 대표적인 역사적 장면을 중심으로 유신의 역사를 분석한다. 먼저 일본이 ‘왜’로 불리는 이유부터 시작해 전국 시대의 정치적 흐름, 에도 막부, 네덜란드와의 수교, 마지막 쇼군의 도주 등 메이지 유신의 근거가 된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본다. 이어 일왕 메이지의 즉위와 함께 이와쿠라 도모미,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등 인물의 사건들을 분석, 메이지 유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책은 나아가 강화도조약부터 일왕의 인간 선언, 아베 신조가 추구하는 목표 등 메이지 유신 이후 오늘날까지의 상황도 그린다. 특히 박정희 정권 당시 5억 달러만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을 타결시키면서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누락했던 교묘하게, 끈질기게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본의 특성을 분석하며 현 아베 정권의 목표를 내다본 점이 눈길을 끈다.

<라의논·1만6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